

간식 주기도 알아서 척척... '로봇 집사' 들이세요

분리불안·식욕부진 증상 나타나면 노즈워크 등으로 기분전환 필요해 '코지', 카메라로 반려견 상태 확인 다양한 동작패턴...놀이주기 가능



펫 케어 용품 제조기업 사비코지가 반려동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마트 케어봇 '코지'를 선보였다. '코지'에는 고화질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반려동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사진제공 | 사비코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2단계를 오가면서 외출이 여의치 않자 반드시 산책을 시켜줘야 하는 반려견의 경우 우울감이 더 심한 모습이다.

반려견의 대표적인 우울증 증상에는 ▲물어뜯거나 파괴적 행동 ▲무기력증 ▲식욕부진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이나 산책 등에 관심 없음 ▲수면습관 변화 ▲분리불안 ▲체중변화 ▲하울링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핥는 행위 ▲보호자와의 스킨십 거부 등이다.

이 같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반려인의 마음도 심란해진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이 낯선로 간식을 찾는 노즈워크나 기능성 장난감을 통해 반려견의 기분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사비코지는 반려동물

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 스마트 케어봇 '코지'를 개발했다.

스마트 케어봇 '코지'는 ▲HD고화질 카메라 ▲양방향 오디오 ▲간식 주기 ▲원격 조종 ▲트랙 이동 ▲장애물 감지센서 ▲다중접속 ▲터치 감지 ▲긴 배터리 수명 등 9가지 기능을 갖췄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훌륭한 친구가 된다.

HD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모습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양방향 오디오를 통해 고성능 마이크 및 스피커로 원거리에서 반려동물에게 음성을 전달하고, 반려동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코지'의 본체 하부의 토출구에서 언제든지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할 수 있

다. 여러 시간에 걸쳐 저칼로리 간식을 급여하면 반려동물의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와이파이로 원거리에서도 코지의 조정이 가능하며, 휴대폰 앱을 통해 회사에서도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보고 케어할 수 있다.

코지는 집 안에서 트랙 이동이 가능하며 원하는 경로도 미리 지정해놓을 수 있다. 장애물 감지센서가 있어 자율주행 시 벽이나 장애물을 감지하여 회피가 가능하다. 첨단기능의 자율주행으로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 움직이며 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감지 기능이 있어 반려동물이 코지 본체를 건드리면 간식 급여 및 미리 설정된 동작으로 반려동물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단순한 노즈 워크가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동작패턴으로 반려동물과 다양하게 놀아줄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다양한 놀이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코지에 대해 아마존 사이트 등에서 해외 구매고객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한 구매자는 "제품을 설정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고 했고, 또 다른 구매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을 때 사용하기가 훌륭하다"고 호평했다. 김효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날씨와 생활

26일(목)

서울	10/20	인천	20/20	수원	20/20
☀️	3 10	☀️	3 9	☀️	1 11
춘천	0/20	강릉	0/20	청주	0/20
☀️	-1 10	☀️	5 12	☀️	2 11
대전	10/20	전주	10/20	광주	10/20
☀️	2 12	☀️	4 12	☀️	5 14
대구	0/20	울산	0/20	부산	0/20
☀️	4 13	☀️	5 15	☀️	7 16
창원	0/0	제주	3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	5 13	☁️	10 14	날씨	최저 최고기온°C

☀️ 해돋이 07:23 해질 17:15 🌙 달돋음 15:18 달질 03:11

산 날씨	
북한산	☀️ 0/11
설악산	☀️ 4/12
오대산	☀️ 0/11
속리산	☀️ 0/12
계룡산	☀️ 0/12
내장산	☀️ 3/12
무등산	☀️ 2/14
주왕산	☀️ -3/13
지리산	☀️ 2/15
한라산	☀️ 10/16
바다 날씨	
인천출도	☀️ 3/9
제부도	☀️ 2/11
경포대	☀️ 5/12
속초	☀️ 3/11
대전	☀️ 0/11
안면도 꽃지	☀️ 1/11
변산반도	☀️ 3/12
거문도	☀️ 4/15
해운대	☀️ 7/16
제주도	☀️ 10/14
미세먼지	
서울	21 좋음
부산	20 좋음
대구	20 좋음
인천	20 좋음
광주	17 좋음
대전	18 좋음
경기	16 좋음
강원	16 좋음
전북	19 좋음
제주	8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463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훈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경제산업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11월 26일(목) 음력: 10월 1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해달라"

정부 부처에 진료비 정책 개선 건의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개정도 요청



정재민(오른쪽) 경남도 농정국장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사진제공 | 경남도청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실시한 경남도가 이번에는 부가세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남도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도민의 정책 제안으로 이뤄졌다. 도민 정책 제안이 이뤄지는 '경남 1번가' 인터넷 페이지에 김영란 씨가 '반려동물 진료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제안'을 올렸다.

그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및 시술 전 가격공개제 도입 ▲동물병원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한 적정 가격 알람 제도 등을 제안했고, 이 제안은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경남도는 정책 제안의 시의성에 공감하고 경남수의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게 됐다. '자율표시제'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반려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았다.

경남도는 정부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성과를 설명하고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를 건의했다. 또한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3개 분야의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사람에 대한 의료와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돼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반려동물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되며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제를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진료비 인상의 주된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김효승 객원기자

"맹견 키우려면 허가 얻어야" ...맹견 사육 법안 발의

맹견 소유·사육시 지자체장 허가 필요 장애인 시설 등에 출입금지 내용 담아



계속되는 맹견 사고에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사진제공 | 뉴스스

끊이지 않는 맹견 사고를 감안해 맹견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과 동반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출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맹견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서울 불광동에서 맹견 로트와 일리가 산책 중인 소형견 스피츠를 몇 초 사이에 물어 죽이는 사고가 났다. 로트와 일리의 견주는 실수로 문을 열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지난 13일에는 고양시 소속 도로 정비

직원이 업무를 보다 맹견 4마리에 여러 차례 물리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직원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졌으나 회복에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맹견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윤재갑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맹견을 지자체 관리 감독하에 두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마음대로 개도 못 키우게 하냐'라는 불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박민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소망 많다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허무한 마음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평화롭다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갈등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소심한 날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상쾌
지금까지 쌓아올린 꿈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천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소가 닭을 만나는 날이다.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삼가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오늘은 달날이다. 육체적인 일 보다는 정신적 두뇌활동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날이다.	만사가 흥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우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오늘은 달날로 재실일이다. 토끼가 닭을 만나면 서로 부딪힌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심사숙고해서 경제활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치해야 할 때는 정치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달날이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 또는 시험 준비 과정에서 알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화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한 달실된다. 뱀은 지살로서 움직이는 기운이 강함에도 오늘 달날은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격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자유 추구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겨우 해결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가시밭길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힘이 넘친다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힘찬 하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일출 직전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오늘은 달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또한 맑은 한 낮을 의미한다. 지나친 밝음으로 타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오늘 양피생은 머리를 써서 기발한 표적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확실히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고돌고 찾도록 노력하라. 장애를 봐서 거기에 투자하라.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끝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은 닭이 닭을 만난 날이다.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오늘은 육해상 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름길을 찾고 싶은 날이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 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오늘은 재실일이다. 교묘한 술책으로 주변의 실력자를 움직여 큰 이익을 추구하는 날이다.